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새형의 대륙간탄도로켓시험발사를 단행할데 대한 명령 하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주체106(2017)년 11월 28일 새로 개발한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5》형 시험발사를 단행할데 대하여 친필명령하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 새형의 대륙간탄도로켓시험발사 성공

조선로동당의 정치적결단과 전략적결심에 따라 새로 개발한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5》형시험발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였다.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5》형 무기체계는 미국 본토전역을 타격할수 있는 초대형중량급핵탄두장착이 가능한 대륙간탄도로켓로서 지난 7월에 시험발사한 《화성—14》형보다 전술기술적제원과 기술적특성이 훨씬 우월한 무기체계이며 우리가 목표한 로켓무기체계개발의 완결단계에 도달한 가장 위력한 대륙간탄도로켓이다.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의 위임에 따라 김정은동지가 지도하는 속에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5》형은 주체 106(2017)년 11월 29일 2시 48분 수도 평양의 교외에서 발사되였다.

로켓은 예정된 비행궤도를 따라 53분간 비행하여 조선동해 공해상의 설정된 목표수역에 정확히 탄착되였다.

시험발사는 최대고각발사체제로 진행되였으며 주변국가들의 안전에 그 어떤 부정적영향도 주지 않았다.

대륙간탄도로켓은 정점고도 4,475km까지 상승하여 950km의 거리를 비행하였다.

김정은동지는 새형의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5》

형의 성공적발사를 지켜보시면서 오늘 비로소 국가핵무력 완성의 력사적대업, 로켓강국위업이 실현되였다고 긍지높이 선포하시였다.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5》형시험발사의 대성공은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악랄한 도전과 겁쌓이는 시련속에서도 추호의 흔들림없이 우리 당의 병진로선을 충실하게 받아들여온 위대하고 영웅적인 조선인민이 쟁취한 값비싼 승리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전략무기개발과 발전은 전적으로 미제의 핵공갈정책과 핵위협으로부터 나라의 주권과 령토완정을 수호하고 인민들의 평화로운 생활을 보위하기 위한것으로서 우리 국가의 리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 그 어떤 나라나 지역에도 위협으로 되지 않을것이라는것을 다시금 엄숙히 성명하는바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책임있는 핵강국이며 평화애호국가로서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한 숭고한 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일 것이다.

주체106(2017)년 11월 29일
평양

국가 핵무력 완성의 력사적 대업 실현 새형의 대륙간탄도로켓시험발사 대성공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5》형시험발사를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직접적인 지도밑에 주체106(2017)년 11월 29일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5》형시험발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5》형시험발사 전 과정을 현지에서 몸소 지도하시였다.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의 병진로선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 자신의 열과 정, 온넛을 다 바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국방과학원에 미제와의 대결전에서 확고한 승리를 결정지을 수 있는 새형의 로켓개발



발방향을 제시하시고 매일과 같이 세심한 지도를 주시며 《화성-15》형무기체계를 완성시켜주시였다.

조선로동당의 슬하에서 백철불굴의 투쟁정신을 뼈에 새긴 결사관철의 선봉투사들이며 자력갱생의 선구자들인 군수로동계급은 짧은 기간에 자체의 힘으로 우리 식의 9축자행발사대차를 만들어냈으며 국방과학자, 기술자들은 창조적지혜

와 열정을 총폭발시켜 새형의 대륙간탄도로켓을 연구개발하였다.

그 나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여러차례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5》형개발전투장과 발동기분출시험장들에 나가시여 실패를 수시로 직접 료해하시면서 국방과학자, 기술자, 로동자들을 오늘의 성공으로 이끌어오시였다.

11월 28일 새형의 대륙간탄도로켓시

험발사준비가 완료되였다라는 보고를 받으시고 깊은 밤 로켓기술준비현장에 도착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먼저 우리 로동계급이 만든 9축자행발사대차를 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군수로동계급의 깨끗한 총정의 마음이 깃든 자력갱생의 창조물을 정겹게 바라보시면서 발사대차를 흠잡을데없이 잘 만들었다고, 도장

11월 28일 새형의 대륙간탄도로켓시

험발사준비가 완료되였다라는 보고를 받으시고 깊은 밤 로켓기술준비현장에 도착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먼저 우리 로동계급이 만든 9축자행발사대차를 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군수로동계급의 깨끗한 총정의 마음이 깃든 자력갱생의 창조물을 정겹게 바라보시면서 발사대차를 흠잡을데없이 잘 만들었다고, 도장

게시며 대륙간탄도로켓 수직화를 비롯한 발사전 공정들을 하나하나 세심히 지도하여주시였다.

이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지휘감시소를 차지하시고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5》형시험발사계획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신 다음 발사를 단행할데 대한 명령을 하달하시였다.

(3면으로 계속)

도 미끈하게 잘하고 모든 요소들을 아주 세밀하고 견고하게 제작하였다고 치하하시면서 대차개발전투에 참가한 공장로동계급의 수고를 헤아려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군수로동계급에서 발사대차체와 발동기, 대형다이아와 권양팔, 발사탁, 유압장치, 전기조종장치, 동력장치를 비롯한 모든 요소들을 100% 국산화, 주체화하는 돌파구를 열어제끼으로써 이제는 우리가 마음먹은대로 대차를 팡팡 생산할수 있게 되였다고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발사장으로 나가시여 국방과학자, 기술자들과 함께



국가 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 실현

새형의 대륙간탄도로켓시험발사 대성공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5》형시험발사를 지도하시였다



(2면에서 계속)

순간 천지를 뒤흔드는 요란한 동음을 장쾌하게 터뜨리며 주체조선의 무진막 강한 힘을 재운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5》형이 눈부신 섬광속에 육중한 동체를 드러내며 우주만리로 솟구쳐올랐다. 이번 시험발사는 새로 개발한 《화성-15》형무기체계의 전술기술적제원과 동작민음성을 확정하는데 목적을 두고 최대고각발사체제로 진행하였다.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5》형은 최대정점고도 4,475km까지 상승하며 거리 950km를 53분간 비행하여 조선동해 공해상의 설정된 구역에 정확히 탄착되었다. 이번 시험발사를 통하여 무기체계의 모든 정수들이 설계의 요구를 정확히 만족하였으며 전략무기체계의 사명에 맞게 전투환경에서의 민음성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다는것을 확정하였다. 특히 중간비행구간 자세조종 및 속도

교정에 의한 명중성, 추진력벡터조종을 실현한 대출력발동기와 비추진력이 높은 발동기의 동작정확성이 확증되었으며 그에 따르는 유도 및 안정화체계설계정수들의 정확성이 검증되었다. 또한 새로 개발완성한 9축자행발사대차의 기동 및 권양능력과 발사계통에 대한 동작민음성을 확인하였다. 이와 함께 이미 확증된 조종 및 안정화기술, 계단분리 및 시동기술, 재돌입 환경에서 전투부의 민음성들을 재확증하였다. 기동성과 명중성이 확고히 보장된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5》형무기체계는 100% 우리의 힘과 기술로 우리 실정에 맞게 개발한 명실공히 조선로동당식 무기체계이며 이로써 우리 국가는 미국본토진역을 타격할수 있는 초대형중량급핵탄두장착이 가능한 또 하나의 신형대륙간탄도로켓무기체계를 보유하게 되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새로 개발한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5》형의 단번성공에 기쁨을 금치 못하시면서 만족에 대만족이라고, 새형의 로켓무기체계개발에 참가한 전체 전투원들에게 자신의 뜨거운 감사를 드린다고 격정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오늘은 국가핵무력완성의 역사적대업, 로켓강국위업이 실현된 뜻깊은 날이라고 하시면서 우리 공화국의 전략적지위를 더 높여 올려 세운 위대한 힘이 탄생한 이날을 조국청사에 특기하여야 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최근 국방과학부문을 비롯하여 나라의 모든 부문에서 일어나는 눈부신 성과는 조선로동당이 선택한 병진로선과 과학중시정책의 빛나는 결실이라고 하시면서 역사의 온갖 풍파속에서도 끄떡없이 우리 당의 위업을 충직하게 받들어온 영웅적조선인민만이 이

특할수 있는 위대한 승리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새로 개발한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5》형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단행하여 주체조선의 존엄과 위용을 다시한번 온 세상에 과시한 국방과학부문 과학자, 기술자, 노동자들과 일군들을 열렬히 축하해주시며 그들을 사랑의 한품에 안으시고 역사에 길이 남을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책임질 숭고한 사명감을 안으시고 핵무력강화의 생눈길을 앞장에서 헤치시여 국가핵무력완성의 거대한 성공담을 쌓아올리시고 제국주의의 침략과 핵위협이 역사에 종지부를 찍은 위대한 대승리를 안아오신 김정은원수님의 전무후무한 핵무력건설업적은 우리 혁명의 승리적전진과 더불어 영원히 빛날것이다.

본사기자

국가핵무력완성의 력사적대업을 실현한 특기할 대사변

경에 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지도속에 지난 11월 29일 새로 개발한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5》형 시험발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시험발사는 최대고각발사체제로 진행되었으며 주변국가들의 안전에 그 어떤 부정적영향도 주지 않았다. 발사체 로켓은 최대정점고도 4 475km 까지 상승하며 거리 950km를 53분간 비행하여 조선동해 공해상의 설정된 수역에 정확히 탄착하였다.

시험발사를 통하여 무기체계의 모든 정수들이 설계의 요구를 정확히 만족하였으며 전략무기체계의 사명에 맞게 전투환경에서의 믿음성을 충분히 보장할수 있다는것을 확정하였다.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5》형무기체계는 미국본토전역을 타격할수 있는 초대형중량급핵탄두장착이 가능한 대륙간탄도로켓으로서 지난 7월에 발사한 《화성-14》형보다 전술기술적제원과 기술적특성이 훨씬 우월한 무기체계이며 우리가 목표로한 로켓무기체계개발의 완결단계에 도달한 가장 위력한 대륙간탄도로켓이다.

이번 시험발사에는 차체와 발동기, 대형다이아와 권양팔, 발사탁, 유압장치, 전기조종장치, 동력장치를 비롯한 모든 요소들이 100% 국산화, 주체화된 9축자행발사대차가 동원되어 자기의 위력한 성능을 과시하였다. 이날 현지에 나오시여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5》형의 성공적 발사를 지켜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기쁨을 금치 못하시면서 오늘은 국가핵무력완성의 력사적대업, 로켓강국위업이 실현된 뜻깊은 날이라고 하시면서 우리 공화국의 전략적지위를 더 높이 올려세운 위대한 힘이 탄생한 이날을 조국청사에 특기하여야 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정녕 이번 시험발사의 대성공은 공화국에 있어서 국가핵무력완성의 력사적대업이 빛나게 실현되었음을 알리는 특기할 력사적사변이며 반만년 민족사의 대경사, 조선인민의 위대한 승리로 된다.

지금 온 나라가 이 소식에

접하여 기쁨과 환희로 명절처럼 들끓고있다.

《자랑스러운 우리의 《화성-15》형》, 《그처럼 바라던 국가핵무력완성이 실현된 이 기쁨과 감격을 무엇이라고 표현할지 모르겠다》, 《경애하는 원수님만 계시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배심이 더욱 굳세여진다》, 《미국인들의 눈이 뒤집혀지게 되었다》, 《우리 힘 꺾을자 이행성에 없다》...

돌이켜보면 오늘의 이 승리는 결코 수월하게 이루어진것이 아니다.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은 조선이 핵과 그 운반수단들을 포기하게 하려고 악랄하고 비렬한 수단과 방법을 다 써왔다.

유엔에서 《제재결의》를 련이어 조작해내고 《독자제재》의 칼도 휘둘렀으며 다른 나라들에 조선과의 외교관계를 격하시키려며 압력도 가하였다. 미국의 핵항공모함, 전략핵폭격기, 핵잠수함들을 뻗

질나게 조선반도 주변수역과 남조선상공에 끌어들이고 각종 북침전쟁연습소동들을 벌리면서 공화국을 군사적으로 위협공갈해왔다. 지어 핵을 포기안하면 《화염과 분노에 직면》하고 국가가 《완전과파》될것이라는 극악무도한 폭언까지 마구 늘어놓았었다.

그러나 공화국은 그에 조금도 굴하지 않고 제재와 위협을 맞받아 나아가면서 병진의 한길로 힘차게 전진해왔다.

핵무력완성의 길에서 《3.18혁명》과 《7.4혁명》, 7.28의 기적적승리를 련이어 안아오고 대륙간탄도로켓장착용 수소탄시험의 장쾌한 폭음도 울리였다.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4》형시험발사에서 성공한 때로부터 불과 몇달밖에 안되는 짧은 기간에 새형의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5》형의 시험발사에서 대성공을 이룩한것은 실로 상상을 초월하는 기적중의 기적이다.

이로써 국가핵무력완성의 력사적대업, 로켓강국위업이 실현되게 되었으며 공화국의 전략적지위는 최상의 수준에 올라서게 되었다.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5》형의 성공적발사는 병진의 기치높이 사회주의강국의 높은 명마루를 향해 질풍노도처럼 나아가는 공화국의 억센 의지와 힘, 불굴의 기상을 그 누구도 꺾을수도, 돌려세울수도 없다는것을 웅변하여주고있다.

지금 세계가 경탄하는 국가핵무력완성의 력사적대업실현은 한평생 조국과 민족의 강성변영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친 위대한 수령님들께 드리는 공화국군대와 인민의 충정의 선물이며 천출위인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만이 안아오실수 있는 특대사변, 대승리이다.

장장 70여년세월 우리 민족에게 핵공갈을 비롯하여 갖은 죄악을 일삼아온 미국의 침략

과 전횡을 단호히 끝장내고 세기를 이어오는 반미대결전을 승리로 결속하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넓은 앞길을 열어나 가시려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국가핵무력완성의 길에 나서시였다.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키데 대한 탁월한 전략적로선을 제시하시고 국가핵무력강화와 완성을 위한 력사적대업수행을 진두에서 조직지휘하시였다.

새형의 첨단로켓개발을 위한 총실계가, 총제작자가 되시여 국방과학자, 기술자들과 언제나 고락을 함께 하시면서 주체란개발의 기적적인 성과들을 련이어 안아오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때로는 깊은 밤, 이른새벽에도 국방과학자, 기술자들을 찾아가시여 기발한 착상도 안겨주시고 때로는 위험한 로켓조립현장에도 장시간 계시면서 국방과학자, 기술자, 로동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안겨주

시였다. 새로 개발한 탄도로켓들을 시험발사하는 위험천만한 현장에도 직접 나가시여 발사전과정을 지켜보시였고 시험발사가 성공할 때마다 온 세상이 환해지도록 기쁨의 웃음을 지으시며 개발자들을 치하해주시였다.

그이의 끝없는 사색과 정력적인 령도에 의해 마침내 두번에 걸치는 7월의 대사변이 이루어지고 수소탄의 장쾌한 퇴성도 울렸으며 오늘은 새형의 대륙간탄도로켓도 태어나 공화국은 국가핵무력완성의 력사적대업을 실현하는 력사적패승을 이룩하게 되었다.

공화국의 국력과 지위를 최상으로 끌어올려 누구도 건드릴수 없는 최강의 나라로 되게 하여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은 우리 민족의 반만년민족사를 최대로 빛내여주시고 천만년 미래까지 굳건히 담보해주시는 은인중의 은인이시고 령장중의 령장이시다.

조선인민의 값비싼 피의 대가로 이루어진 공화국의 완성된 핵무력은 그 무엇보다도 바꿀수 없는 소중한것이며 천만년길이 빛내여야 할 민족의 귀중한 재보이다.

국가핵무력완성의 력사적대업이 이룩됨으로써 공화국의 자주권이 더욱 굳건히 수호되게 되고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 민족의 안전을 더욱 튼튼히 지킬수 있게 되었으며 정의의 반미대결전의 최후승리를 안아올수 있는 위력한 보검이 마련되게 되었다.

명실상부한 핵강국, 세계적인 군사강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라선 조선을 그 누구도 다칠수 없으며 최후승리는 조선의것이다.

본사기자 김철진



주체조선의 강대성의 상징, 영원한 승리의 기치

각 계층 군중의 목소리

국가핵무력완성의 력사적대업, 로켓강국위업의 빛나는 실현. 이것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안아오신 반만년 민족사에 있어본적이 없는 거대한 사변이고 빛나는 승리이다.

새형의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5》형의 장엄한 퇴성과 함께 위대한 령도자를 모신 크나큰 민족적공지와 그 어떤 강적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불패의 강국의 인민이 된 자부심이 온 나라에 차넘치고있다.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책임질 숭고한 사명감을 안으시고 핵무력강화의 생눈길을 앞장에서 헤치시여 국가핵무력완성의 거대한 성공담을 쌓아올리시고 제국주의의 침략과 핵위협을 력사에 종지부를 찍을 대승리를 마련해주신 천출위인께 우리 대학교직원, 학생들의 마음을 담아 가장 뜨거운 감사의 인사

를 드리고싶다.

그이께서 계시여 우리 조국의 천만년미래는 밝고 창창하며 승리는 영원히 조선의 것이다.

김형직사범대학 교수, 박사 리덕남

새로 개발한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5》형시험발사 성공소식은 우리 연구사들의 심장을 무한히 격동시키고 있다.

이로써 조선은 미국본토전역을 타격할수 있는 초대형중량급핵탄두장착이 가능한 신형대륙간탄도로켓무기체계를 보유하게 되었으며 우리의 진군을 악의에 찬 폭언으로 힐뜰고 제재압살책동에 온갖 밀철을 다 쏟아부으며 발광하는 미제와 그 추종세력의 망상은 산산이 깨어지게 되었다.

반만년의 민족사적대업을 이어이 이룩하신 위대한

애국자, 전설적영웅이신 김정은원수님께 최대의 영광과 가장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삼가 드리고싶다.

아울러 경애하는 원수님의 제일동지, 제일전우가 되여 민족사적대승리를 안아온 국방과학부문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열렬한 축하의 인사를 보낸다.

우리 국가과학원의 연구사들은 위대한 강국에서 사는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가슴마다에 간직하고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는 훌륭한 과학연구성과들을 더 많이 내놓겠다.

국가과학원 연구사 김철명

승리의 회열로 막 심장이 터질것만 같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제시하신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의 병진로선을 틀어쥐고 자력자강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할 때 얼마나 거대한 승리를 이룩할수 있는가를 새형의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5》형시험발사성공이 뚜렷이 실증하고있다.

어제는 우리의 가방과 우리의 신발, 화장품이, 얼마전에는 자력자강의 무쇠칠마 《천리마-804》호프락트르와 새형의 화물자동차들이 생산되어 우리 인민을 얼마나 기쁘게 하였는가. 어둠을 밀어내며 거세차게 떠오른 사회주의 강국의 빛나는 《별》은 조선의 힘을 부정할수 없으며 그 어떤 제재와 압살도 조선의 불굴의 신념과 전진속도, 건인불발의 힘을 당해낼수 없음을 세계앞에 여지없이 증명하였다.

위대한 병진로선이 안아온 오늘의 승리를 폐부에 새기고 학생들을 미래의 역군으로 역세게 키우겠다.

대흥초급중학교 교원 리경숙

이것이 조선의 대강이다

리송일

우리 민족이 그리도 갈망하던 강국의 기상인가 창공높이 솟구치는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5》형

어둠의 장막 사르는 저 불줄기는 로켓강국위업실현의 장쾌한 선언

만리창공에 수놓는 저 자리길은 력사에 새기는 조선인민의 위대한 승리

장엄하다 《화성-15》형 우리 땅 우리 하늘 우리 바다를 노려 조금이라도 움적한다면 침략자들 불에 덩벼든 부나비신세 되리

제재봉쇄로도 고립압살로도 절대로 굴복시킬수 없다 자강력으로 부강변영하고 정의의 신념으로 억척인 우리 조선

미제가 날칠수룩 무서운 보복의 화약 다져지고 미제의 최악이 쌓일수룩 미제의 무덤만 더 깊어지리니

아,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우리 원수님 펼쳐주시는 병진의 침로따라 백승의 한길로 날으는

《화성-15》형은 세상에 선언한다 누구도 조선은 건드리지 못한다

조선은 정의의 로켓강국이다

국가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올바른 길

지금 미국은 공화국의 자위의 억제력을 빼앗아보려고 별의별 수단과 방법을 다 쓰고있다. 제재를 최대로 강화하고 군사적위협을 극대화하는가 하면 다른 나라들에 조선과의 외교관계를 격하시키라며 비열하게 압력을 가하고있다. 한편으로는 달콤한 유혹으로 조선의 의지와 결심을 흔들어버려 하고있다. 핵과 탄도로켓를 포기해야 조선이 안전해질수 있다고 떠들어대고있는것도 그러한 유혹, 위협의 하나이다.

얼마전에도 미국무성 대변인은 《북조선의 인사와 불법적인 핵 및 미사일시험은 북조선을 더 안전하게 만드는게 아니다.

핵억제력에 대한 역적의 믿음

비핵화를 시종일관 주장해온 조선이 핵을 개발하고 보유한것은 미국의 가중되는 핵위협, 침략위협에 맞선 정당당한 조치였다. 하다면 미국의 핵위협을 자위의 핵으로 억제해야 한다는 이 믿음이 잘못된것이였는가. 미국은 지금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라고, 오히려 핵때문에 조선의 안전이 위협해졌다고 강변하고있다.

미국의 말이 옳은가, 조선의 주장이 옳은가.

그것은 더 논박할 여지가 없다.

조선의 핵은 그자체가 최강의 억제력이고 그것은 조선반도 평화수호의 강위력한 보검이다.

조선에게 있어서 미국은 지구상 가장 적대적인 나라이다. 조선과 미국은 이미 한차례의 참

오혀려 그 반대가 맞다.》고 회피운 소리를 늘어놓았다. 11월 17일 미국무장관인 킬러슨도 워싱턴에서 30여개 아프리카나 외무장관들과 가진 무역, 안보관련회의에서 《북조선이 진정한 안보를 얻는 유일한 방법은 현 로선을 버리고 다른 미래에 대한 의미있는 대화를 선택하도록 하는것이다.》라고 떠들어댔다.

핵과 로켓를 포기해야 진정한 안보를 얻을수 있다? 과연 그런가.

혹한 전쟁을 치르었고 지금도 교전관계에 있다. 평화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미국은 조선을 압살하려는 적대적기도를 력사상 한순간도 버리지 않았다. 그 백년속적의 손에는 지금 인류를 수번호 더 멸살시킬수 있는 핵무기가 쥐여져있다. 미국이 오래동안 핵무기로 조선에 위협해왔다는것은 세계가 공인하는 사실이다. 동서전쟁이 종식된 이후에도 미국의 핵위협은 계속되고 더욱 중대되었다.

1993년 미전락군사령부는 저들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일부가 조선에 겨냥하고있다고 공개적으로 선포했다. 2002년 부쉬행정부는 리비아, 수리아, 중국, 로씨야, 이란, 이라크와 함께 조선에 잠재적인 핵선제공격대상으로 지명하였다. 미국의 공

개정치연구소인 스타임스센터에 의하면 1970년부터 2010년까지의 기간에 미국은 조선에 핵으로 없애치우겠다고 6차례나 위협했다고 한다. 한때 미국무장관 포웰도 《북조선을 제거 루로 만들수 있다.》고 떠들어댔다.

미국의 대조선핵공갈과 위협은 늘다리전쟁미치광이인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후 최대로 증폭되었다.

대통령이라는 트럼프는 조선에 향해 핵사용을 뜻하는 《화염과 분노》를 거리낌없이 늘어놓았고 지어 유엔총회마당에서 까지 국가의 《완전파괴》를 역설해댔다. 이것이 조선이 맞서고있는 미국의 진짜실체이다.

력사와 오늘의 현실은 침략의 핵에는 오직 자위의 핵으로 맞서야 자기를 지킬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세상사람들이 핵무기를 《강력한 억제력》이라고 말하는것도 우연한것이 아니다.

세계에서 두번째로 핵시험에서 성공한 이전 소련이 핵보유를 결심하게 된것도 미국의 핵공갈과 위협으로부터 자국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지금도 핵보유국들은 핵무기 고의 유지강화를 이런 논리로 정당화하고있다. 미국에 추종하여 조선이 핵을 포기하라고 악착스레 놀아대는 영국정부의 2006년 국방백서에도 《영국의

핵무기는 자기의 사할적리역에 대한 핵위협이나 침략행위들 다 시말하여 다른 이여의 수단으로 대응할수 없는 도전들을 억제하거나 사전에 막는것을 목적으로 하고있다.》고 씌여져있다.

자기의 핵은 억제력이라고 하면서 남의 핵은 억제력이 아니라 화근이라고 말하는것이 과연 리치에 맞는 소리인가.

핵을 보유했기때문에 조선이 위협해졌다? 현실은 그 반대이다.

바로 미국이 것처럼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기면서도 지금 함부로 조선에 건드리지 못하는것이 그 무슨 아량이나 국제사회의 반대어론때문이라고 하겠는가. 조선을 감히 다쳐다가는 미국에 재앙이 초래될수

있다는것을 미국자신이 잘 알기때문이다.

미합참의장 단포드는 지난 9월 상원군사위원회 재인준 청문회에 출석하여 《북조선은 미국본토를 핵으로 타격할 능력도 있고 그럴 의지도 있다.》고 말하였다. 이전 미국방차관 플러노는 9월 26일 《대북조선선례공격》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고 하면서 《북조선의 어떤 대응도 불리일키지 않는 외과수술식타격이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미국회의원들이 최근 조선과의 전쟁이 미국에 끔찍한 재앙을 초래할것이라고 하면서 《대북조선선례공격》을 금지하는 법안을 국회에 편속 상정시킨것도 우연한것이 아니다.

《핵포기》 = 안전포기

어느 한 동화책에 뿔 구부린 양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승냥이의 온갖 감언리설과 꾀임에 넘어가 여지껏 잘 버려온 보신용뿔을 구부리는 양, 마침내 양의 뿔이 구부러지니 본성을 드러내며 잡아먹겠다고 달려드는 승냥이, 버리면 자기를 지키게 되고 구부러지니 무용지물로 되고마는 양의 뿔, 오늘의 세계에 참으로 깊은 교훈을 새겨주는 동화이다.

지금 적대세력들이 조선이 핵을 포기해야 《진정한 안보》를 얻을수 있다고 떠드는것을 보면

승냥이가 양에게 뿔을 구부리라고 감언리설에 열중하는 동화의 한 장면을 련상케 한다. 미국의 조선이 핵을 포기하면 침략하지도 않고 정권교체, 제도교체도 하지 않는다고 사랑발림의 《약속》을 늘어놓고있다. 위협질반, 회유질반으로 저들의 목적을 실현해보려고 하고있다.

그러나 승냥이가 양이 뿔수 없듯이 침략과 살륙을 체질로 하는 미국의 본성은 추호도 변할수 없다는것이 미국과의 오랜 대결전을 벌려오면서 조선의 군대와 인

민이 깊이 새긴 진리이다. 아마 조선이 핵을 내려놓으면 미국은 이때라 하고 덥석 몰자고 덤벼들것이다.

미군의 침공을 당한 이라크의 경우가 그렇고 미국의 공습을 당해 정권이 뒤집어지고 내전이 오늘도 지속되는 리비아의 참극도 그것을 똑똑히 증명해주고있다.

이 나라들의 교훈은 무장해제가 침략을 불러오는 초창장파도 갈다는것이다.

미국이 자기 말을 따르라고 하는것은 조선도 이 나라들처럼 되라는 소리이다.

력사적으로 미국은 핵무기를 휘두르며 갖은 못된짓을 다하였고 인류에게 온갖 재앙을 들쭉였다. 그러나 미국의 횡포한 침략과 전횡을 그 어느 나라도 막지 못하였다. 지어 유엔도 미국 앞에서는 무뎠던 존재에 지나지 않았다.

나라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지켜주는것은 다른 그 누가 아닌 오직 그 나라 자체의 힘이다. 조선은 그래서 핵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며 병정의 길로 끝까지 나아가고있다.

새형의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5》형의 시험발사대 성공으로 국가핵무력완성의 력사적대업을 실현하고 나라의 전략적지위를 더 높이 올려세운 지금에 와서 공화국의 핵억제력은 국가와 인민의 안전과 지역의 평화를 믿음직하게 수호하는 가장 강력하고 위대한 힘으로 되고있다.

김련옥

범민련결성 27돐 기념행사 서울에서 진행

남조선인터네트신문 《자주시보》에 의하면 11월 26일 서울에서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결성 27돐 기념대회》가 진행되었다.

범민련 남측본부와 민중당, 로동당, 민주로총, 진보련대, 민족민주투사회생자추모단체련대회의, 빈민해방실천련대 등 정당, 단체 대표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 리규재는 대회사에서 북

과 남, 해외가 3자련대의 기치를 높이 들고 반미자주, 평화수호투쟁을 더욱 드세게 전개하자고 호소하였다.

북과 남, 해외대표들이 직접 만나는 범민련 공동의장단회의를 성사시켜야 한다고 그는 주장하였다. 이어 련대토론들이 있었다.

대회에서는 범민련 북측본부와 해외본부에서 보내온 련대사들이 랑독되고 《민주항쟁의 초불에

서 반미항쟁의 초불로》라는 제목의 영상편집물이 상영되었다.

민중당 상임대표는 결의토론에서 새로운 민족사통일대행진을 모두가 나서자고 호소하였다.

진보련대 상임대표도 매년초에 전지역적으로 자주통일민중총결기대회를 진행하고 이를 계기로 전민족통일대회합도 반드시 성사시켜자고 강조하였다.

민주로총 위원장 직무대

행과 빈민해방실천련대 공동대표들은 자기 단체 성원들도 6.15, 10.4선언리행으로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길에 함께 나설것이라고 언명하였다.

결의문이 랑독되었다.

결의문은 다음해 8월 15일을 계기로 3자련대를 위한 대회를 개최하고 민족자주와 민족대단결, 평화형제결과 미군철수, 《보안법》철폐, 련방제 등 정치적과제 10.4선언리행을 주요투쟁구호로 제기할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이를 위해 범민련 남측본부와 동세력과 공동으로 추진기구를 내오고 매년 초부터 다양한 실천활동을 벌려나갈것이라고 결의문은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불순한 《신북방정책》

최근 남조선 당국이 그 무슨 《신북방정책》이라는것에 대해 요란스레 광고하고있다. 남조선당국은 지난 7월에 《신북방정책》을 《국정운영5개년계획의 핵심과제》로 설정하고 그 실현을 위해 《대통령》직속기구로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내왔으며 집권자의 외국행각 등 여러 계기들에 그에 대한 지지와 협력을 구걸하는 높음을 벌리었다.

얼마전에는 현 집권자가 남조선 라수반을 만나 유라시아 대륙의 평화와 번영을 목표로 하는 《신북방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산업, 교통, 에네르기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력설하였는가 하면 해양수산부도 부산에서 여러 나라 정부와 학계, 민간기업인 등이 참가한 《2017북방을 위한 《물류분야의 협

력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지금 남조선당국은 《신북방정책》이 《경제활성화와 안보에 큰 도움이 될수 있다.》, 《외교의 지평을 북쪽으로 확장하여 경제, 안보관계를 해소할수 있는 전략》이라고 떠들어대고있다.

저들스스로가 실토한 바와 같이 남조선당국의 《신북방정책》은 지난 시가 전두환, 로태우역도가 사회주의나라들과 신흥세력나라들에 대한 공화국의 대외적영향력을 견제하고 그 무슨 《개혁》, 《개방》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발광적으로 추진하던 《북방정책》의 재판으로서 유라시아대륙에 위치한 나라들을 반공화국제제압박공조에 끌어들이려는 음흉한 기도에 따른 동족대결정책의 산물이다.

남조선당국자가 《신북방정책》을 떠들면서 외 국수반들을 만날 때마다 《북핵문제》를 도마위에 올려놓고 《대북공조》를 구걸한 한가지 사실만 놓고보아도 《신북방정책》이 추구하는 불순한 목적을 잘 알수 있다.

남조선당국이 어제는 《신남방정책》을, 오늘 《신북방정책》을, 요란스레 떠들어대는데는 또한 《안보》는 미국에, 경제

는 동남아시아나라들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에 의존하여 경제위기의 《출로》를 열어보려는 알팍한 노림수가 깔려있다.

하기에 남조선당국은 경기도 평택에 단일기지로 세계최대규모의 미군기지를 건설하는 비용을 거의 다 대는것으로 미국에 아부아침하는 한편 중앙아시아나라들과 동남아시아나라들에는 《투자》와 《협력》에 대해 요란하게 떠들고있는것이다.

하지만 남조선당국이 《신북방정책》을 광고하면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대해 떠드는 것은 위선의 극치가 아닐수 없다.

미국의 핵전략자산들을 끌어들이 광란적인 핵전쟁연습수동으로 조선반도와 지역의 정세를 극도로 긴장시키고있는 남조선당국이야말로 유라시아대륙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범죄자이고 지역의 암적존재일뿐이다. 반공화국제제압박놀음에 유라시아대륙에 위치한 나라들을 끌어들이려는 남조선당국의 《신북방정책》은 그것이 노린 불순한 목적으로 하여 겨레의 배격을 당하고 쓰디 쓴 과멸을 면치 못하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김철민

남조선로동운동단체들 대규모항의투쟁 전개

보도들에 의하면 11월 28일 남조선의 민주로총과 소속 건설로조가 서울의 《국회》앞에서 대규모항의투쟁을 전개하였다.

《국회》의 반로동자적 태도에 격분하여 민주로총은 《근로기준법》개악을 반대하는 긴급집회를 가지었다.

발언자들은 집권자가 내들었던 로동시간단축공약과 정면으로 배치될뿐 아니라 연장작업을 강요하며 로동재해만 남겨 하는 《근로기준법》개악강행을 절대로 목과할수 없다고 단죄하였다.

그들은 《근로기준법》

개악책동때문에 전체 로동자들의 분노가 참을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하면서 특례조항이 없어지지 않는 한 로동존중의 사회는 없다고 절규하였다.

민주로총의 집회가 끝난 다음 건설로조의 대규모투쟁이 진행되었다.

전 지역에서 모여온 2만여명의 건설로조원들은 로동자들의 투쟁이 벌어지고있는 여의도의 광고탑에서부터 《국회》앞까지 시위행진을 하였다.

행진을 마친 로조원들은 《로동기본권 쟁취!》,

《건설근로자법 즉각 개정!》 등의 구호판들을 들고 총파업결의집회를 가지었다.

집회에서는 고용불성중에 있는 건설로동자가 전화로 보내는 발언이 있었다.

그는 지금 건설현장은 매일 2명씩 죽어가는 전쟁터라고 하면서 로동이 존중받지 못하는 세상, 건설로동자들이 제대로 대접받는 세상 만들기 위해 함께 투쟁하자고 호소하였다.

집회장에서는 《건설근로자법 개정하고 인간답게 살아보자.》 등의 웨침이 터져나왔다.

집회가 끝난 다음 참가

자들은 마포대교를 차지하고 《건설근로자법개정안》 통과를 가로막은 《국회》를 단죄하며 항의풍성을 벌렸다.

로동자들의 투쟁을 억누르기 위해 파썬경찰은 《국회》앞도로를 봉쇄하고 폭압분위기를 고취하였다.

이날 민주로총은 《한국로총》, 정의당 의원들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가지고 로동시간단축은 로동자와 국민의 념원이라고 하면서 당국이 이 요구를 받아들여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외세의존에 명줄을 건 반민족적망동

최근 남조선당국이 《북핵위협대응》을 운운하며 미국, 일본과의 《대북정보》 공유확대늘음을 매달리고있다. 이미 미국과의 《정상회담》에서 《대북정보》공유를 확대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공동언론발표문》에까지 포함시킨 현 집권세력은 최근에는 저들의 《대북인적정보》와 미국의 《대북영상》 및 통신정보의 호상교환 문제, 《대북정보》의 질과 량개선문제, 북의 주요전략기지와 조중국경지대에 대한 공동감시강화문제 등을 미국과 협의하고있는것이다.

그런가 하면 집권전에는 강하게 반대하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기한을 1년간 더 연장한데 이어 《한》일정보교환을 위한 긴급직통전화선도 현재 1회선에서 3회선으로 늘이기로 하였다.

남조선당국이 조선반도

정세가 극도로 침체한 시점에서 미국과 《대북인적정보》, 영상 및 통신정보를 교환하고 《대북정보》의 질과 량을 개선하기로 합의한것은 미국에 추종하여 북침핵전쟁준비를 마무리하고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리는 반민족적, 반통일적망동이다.

알려진바와 같이 미국은 아시아태평양중시전략에 따라 이 지역에 방대한 무력을 집중하고 저들의 패권전략을 실현하기 위해 발악하면서 매일같이 북침핵전쟁연습에 광분하고있다.

이로 하여 조선반도정세는 날로 더욱 악화되고 있으며 동북아시아,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대국들 사이의 모순과 갈등은 날로 커지고있다.

동북아시아의 잠재적인 적수들을 군사적으로 포위억제를 하고 이 지역에서 패권을 장악할것을 꾀하고있는 미국은 남조선호전광들

을 대아시아지배전략의 돌격대로 내몰고있다. 《싸드》의 남조선배치와 미사일방위체계의 구축, 3각군사동맹구축은 미국의 대아시아지배전략 실행을 위한 주되는 고리이다.

남조선당국의 《대북정보》공유확대늘음이 미국의 주도하에 우리 공화국을 무력으로 침공하고 주변나라들에 대한 포위환을 형성하여 동북아시아 지배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한》미일3각군사동맹구축의 일환이라는것은 자라가 공인하는 사실이다.

결국 남조선집권자가 기대가 있을때마다 《(한)반도전쟁불가》와 《평화적해결》, 《한》미일3각군사동맹반대 등을 떠든것이 내외여론을 기만하기 위한 서포자리 방패막이에 불과하다는것이 여실히 드러나고있다.

더우기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을 1년간 더

연장시킨데 이어 《한》일정보교환을 위한 긴급직통전화선도 현재의 1회선에서 3회선으로 늘이려하는것은 남조선당국이 동족대결의 불순한 기도를 실현하기 위해 민족의 백년속적과 입맞춤을 하며 북침전쟁의 칼을 갈고있다는것을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남조선당국의 이러한 책동은 외세의존과 동족대결에 미친 나머지 초보적인 사고기능마저 마비되어 대세도 판별할줄 모르는 무지스러운 열간망둥이들의 역겨운 추태이다.

외세와 야합하여 동족을 압살하려는 어리석은 망상에 들떠 반공화국압살책동에 극성을 부리며 민족앞에 씻을수 없는 죄악만 덧쌓고있는 남조선당국은 그 대가가 얼마나 처절하고 참혹할것인가를 명심하고 심사숙고해야 한다.

본사기자 서 희

초불민심에 도전하는 적폐세력

남조선인민들의 저주와 규탄속에 력사의 무덤속으로 들어가고있는 보수패당이 최근 로골적으로 민심에 도전해나서고 있다.

얼마전 남조선 법원은 리명박역도집권시기 군사이버사령부의 대글공작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되었던 전 《국가안보실》실장 김관진과 전 《국방부》정책실장 임관빈을 《부당한 구속사유》를 구실로 석방하였다. 이보다 앞서서는 보수패당의 방송장악음모에 적극 가담한 전 《MBC》사장 김재철의 구속령장도 기각하는 등 리명박역도의 범죄혐의를 입증할수 있는 핵심인물들에 대한 구속사유를 로골적으로 방해하고있다.

검찰도 지금까지 저들의 구속결정이 법원에서 뒤집혀질 때마다 즉시 반발하였지만 이번에는 이력대로 남의 들러리나 꼭두각시로 리용되다가 다과먹은 김치독이 되어 내던져지기가 일쑤이다.

《국민의 당》과 《바른정당》의 통합론의 배경에는 초불민심에 편승하여 정국주도권을 장악한 여당세력을 제압하고 보수세력부활을 위한 새로운 세력을 형성하려는 미국의 음흉한 속심이 깔려있다. 친미성향이 농후한 저들의 노복들을 내세워 남조선정계를 마음대로 조종해온 경향이 풍부한 미국이고 보면 이번 정계개편음모직업이 미국의 검은 손이 뻗어있지 않다고 누구도 장담할수가 없다.

하지만 기회주의자들의 운명이 언제나 그러하듯 안철수세력들이 발붙일 곳은 그 어디에도 없다. 남조선의 정의로운 민심을 등지고 미국과 권력을 쫓아 배신과 변절을 일삼는 세력이 보수의 파멸과 함께 력사의 시궁창에 처박히는것은 시간문제이다.

전영민

태도를 취하고있다. 사태가 이렇게 번져지자 《자유한국당》패거리들은 때를 만난듯이 《(정부)의 정치보복성 사법절차의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고아대는가 하면 적폐세력들에 대한 엄격한 심판을 요구하는 사람들을 《법치주의의 적》이라고 매도해나서고있다.

분노한 초불민심앞에 고양아얌에 선 쥐마냥 숨을 곳만 찾아다니던 보수패당이 이렇게 기고만장하고있는데는 만데 원인이 있지 않다. 박근혜역도의 오른팔이었던 우병우와 동향, 동창인 판사 김관진과 임관빈을 석방한데서 알수 있는바와 같이 남조선법원과 검찰에는 리명박, 박근혜역도의 잔당들이 아직도 살아 숨쉬고있다. 똑같은 적폐세력인 이자들이 지금 법관의 탈을 쓰고 음모로 남조선사회의 적폐청산을 방해해나서고있는것이다. 남조선법원과 검찰에 남아있는 보수잔당들을 방임하다가는 초불민심이 바라는 적폐청산이 어떻게 뒤집혀질지 알수 없다.

남조선보수패당이 적폐청산에 도전하고있는데도 또한 미국의 입김과 부추김이 작용하고있는데도 원인이 있다.

최근시기 련이어 폭로

된바와 같이 미국은 전 《국가안보실》실장 김관진을 비롯한 친미졸개들과 공모하여 리명박, 박근혜집권시기 수송직승기와 같은 저들의 낡은 무기들을 팔아먹고 《싸드》배치를 강행하는 등 온갖 불법행위들을 저질렀다.

남조선에서 보수 《정권》의 적폐를 파헤치는 수사가 진행되자 미국은 저들의 죄행이 드러날가봐 극도로 당황해하면서 어떻게 하나 적폐세력청산에 제동을 걸어보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있다. 지금 미국은 초불민심에 의해 밀부리채 흔들리는 식민주의체제를 《안정》시키고 지리멸렬의 위기에 처한 친미보수세력을 되살리기 위해 홍준표와 같은 《자유한국당》떨거지들을 적극 밀어주는 한편 미국대사관과 미중앙정보국 남조선지부 등을 총동원하여 적폐청산을 방해하는 작전을 벌이고있다.

하지만 사회의 자주화와 민주화, 북남관계개선과 통일을 바라는 남조선초불민심의 도도한 흐름은 그 무엇으로써도 가로막을수 없다.

보수패당이 제아무리 초불민심에 도전하여도 그것은 썩은 닭알로 바위를 치는 격이다.

김용삼

최근 남조선에서 정계개편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 속에 《국민의 당》의 활동이 주목을 끌고있다.

그 무슨 《새 정치》, 《제3의 길》을 내세워 민주와 보수세력사이를 오락가락하며 안개속정치를 해온 《국민의 당》이 자체모순을 안고 풍지박산날 처지에 놓인것이다.

그것을 단 여주는 보인 실례가 바로 《국민의 당》안에서 지금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계파싸움이다.

망하는 집안에 싸움이 잦다고 심심치 않게 불협화음이 울려오곤 하는 《국민의 당》안에서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추진하는 안철수와 사이를 반대하는 전라도파 사이에 충돌이 거세지고 있다.

통합을 추구하는 안철수파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량당구도를 허물려면 《합리적진보와 개혁적보수가 묻쳐야 한다.》, 《당이 살아남자면 전라도당에서 탈피하여 전국정당이 되어야 한다.》, 《중도통합을 통한 제3의 길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다.》고 떠들면서 보수집권시기 그에 불어 기생해온 보수패거리들이 《바른정당》세력과의 통합을 기어코 실현해보려 하고있다.

특히 안철수는 당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얼마전 《바른정당》과의 정채련대기구인 《국민통합포럼》을 내세워 《량당련대, 통합의미와 전망 그리고 과제》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라는것을 벌여놓았는가 하면 량당의 정책위원회 의장, 원내수석부대표를 망라하는 정채련대협의체를 만들어 통합론의 본격화하겠다고 하고있다.

이에 본격한 전라도파는 《안철수가 《국민의 당》을 소멸의 길로 끌고가고있다.》, 《한치앞도 내다 못보는 안철수는 정치무식쟁이다.》, 《기어이 안철수가 통합을 하겠다면 보따리를 싸가지고 나가라.》고 들고 일어나면서 반대파세력을 규합하는 한편 안철수파의 책동에 강하게 맞서나가기 위해 《평화개혁련대》를 내오겠다고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의 당》의 지지기반인 전라도 지역의 각계층들은 《제3의 길》을 표방하면서 리명박, 박근혜잔당들인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운운하는 안철수는 《구태정치인보다 더한 놈》이라고 몰아대면서 그의 기회주의적행태를 저주하고있다.

권력야망에 사로잡힌 《국민의 당》대표 안철

수가 지금 남조선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은 보수세력에게 들어붙어 살길을 찾아보려고 해담비지만 오히려 제 행정을 파는 결과를 초래할뿐이다.

《국민의 당》의 안철수파가 추구하는 《중도통합》을 통한 제3의 길이라는것은 엄연히 리명박, 박근혜적폐를 완전히 청산할것을 요구하는

한 권력야심이 만들어낸 것이다.

간에 붙었다 싶에 붙었다 하는 기회주의자들은 력대로 남의 들러리나 꼭두각시로 리용되다가 다과먹은 김치독이 되어 내던져지기가 일쑤이다.

《국민의 당》과 《바른정당》의 통합론의 배경에는 초불민심에 편승하여 정국주도권을 장악한 여당세력을 제압하고 보수세력부활을 위한 새로운 세력을 형성하려는 미국의 음흉한 속심이 깔려있다. 친미성향이 농후한 저들의 노복들을 내세워 남조선정계를 마음대로 조종해온 경향이 풍부한 미국이고 보면 이번 정계개편음모직업이 미국의 검은 손이 뻗어있지 않다고 누구도 장담할수가 없다.

하지만 기회주의자들의 운명이 언제나 그러하듯 안철수세력들이 발붙일 곳은 그 어디에도 없다. 남조선의 정의로운 민심을 등지고 미국과 권력을 쫓아 배신과 변절을 일삼는 세력이 보수의 파멸과 함께 력사의 시궁창에 처박히는것은 시간문제이다.

전영민

어물리지 않는 《대화》라령

머칠전 남조선통일부장관 조명균이 어느 한 토론회에 보낸 《서면제사》라는데서 저들이 제압살책동의 돌격대로 나서서 광분하고있는데 중요하다.》면서 《다시한번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분단의 아픔을 해소하는 노력에 북이 동참할것을 촉구한다.》고 횡설수설했다.

죽제비도 낮짝이 있다는데 과연 그에게 《회담제의유효》나 《긴장완화》, 《분단의 아픔해소》와 같은 말을 할 체면이 있는가. 오늘 조선반도의 정세는 다치면 터질듯이 팽팽하며 북남관계도 최악의 과국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다.

오늘과 같이 북남관계과국이 지속되고 전쟁위

험이 날로 치솟고있는것은 남조선당국이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압살정책에 추종하면서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의 돌격대로 나서서 광분하고있는데 중요한 원인이 있다.

지금 남조선당국자들은 짬만 있으면 북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최대한 가해야 한다.》고 떠들고있으며 유엔을 비롯한 국제무대들에서 있지 않는 《북인권문제》를 들고나오면서 동족대결을 고취하고있다.

뿐만아니라 조선반도수역에 미국의 핵항공모함들을 끌어들이 북침을 노린 전쟁연습소동들을 련일 벌리는가 하면 이달초에는 미국의 스텔스전투기 《F-22》, 《F-35A》, 《F-35B》까지 참가하는

대규모통합공중훈련을 강행하려 하고있다.

남조선당국자들이 이처럼 손에 휘두르면서도 입으로는 그 무슨 《대화》라령을 늘어놓는것이야말로 뻔뻔스러운 추태이고 앞뒤가 다른 이중적인 행동의 극치이다.

지금 남조선민심은 당국이 미국과 야합하여 벌리는 합동군사연습들을 당장 중지하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진정성있는 행동을 취할것을 요구하고있다.

남조선당국이 진정으로 긴장완화와 분렬의 고통을 해소하는데 관심이 있다면 먼저 대미추종정책과 단호히 결별하는 용단을 내려야 한다.

본사기자 김진혁

기회주의자들이 발붙일 곳은 없다

남조선 각계층의 지향에 대한 도전행위이다. 그것은 민주개혁세력의 분렬을 조장하는 의도적이며 계획적인 음모인 동시에 당을 지지해온 전라도민심을 우롱하고 모독하는 것으로 되며 결국 민심의 규탄과 배격을 면할수 없는것이다.

안철수파가 《바른정당》과의 통합명분으로 내들고있는 《전국정당추진론》도 따지고보면 당안에서 중진세력으로 되고있는 전라도파를 견제 배격하고 《국민의 당》을 보수층의 환심을 사는 이른바 《개혁보수정당》으로 만들어 다음기 《대선》에 보수후보로 나서 보려는 안철수의 비렬

고 하고있다.

이에 본격한 전라도파는 《안철수가 《국민의 당》을 소멸의 길로 끌고가고있다.》, 《한치앞도 내다 못보는 안철수는 정치무식쟁이다.》, 《기어이 안철수가 통합을 하겠다면 보따리를 싸가지고 나가라.》고 들고 일어나면서 반대파세력을 규합하는 한편 안철수파의 책동에 강하게 맞서나가기 위해 《평화개혁련대》를 내오겠다고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의 당》의 지지기반인 전라도 지역의 각계층들은 《제3의 길》을 표방하면서 리명박, 박근혜잔당들인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운운하는 안철수는 《구태정치인보다 더한 놈》이라고 몰아대면서 그의 기회주의적행태를 저주하고있다.

권력야망에 사로잡힌 《국민의 당》대표 안철

수가 지금 남조선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은 보수세력에게 들어붙어 살길을 찾아보려고 해담비지만 오히려 제 행정을 파는 결과를 초래할뿐이다.

《국민의 당》의 안철수파가 추구하는 《중도통합》을 통한 제3의 길이라는것은 엄연히 리명박, 박근혜적폐를 완전히 청산할것을 요구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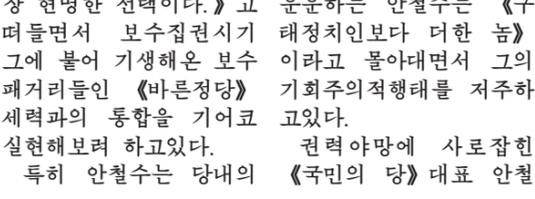
한 권력야심이 만들어낸 것이다.

간에 붙었다 싶에 붙었다 하는 기회주의자들은 력대로 남의 들러리나 꼭두각시로 리용되다가 다과먹은 김치독이 되어 내던져지기가 일쑤이다.

《국민의 당》과 《바른정당》의 통합론의 배경에는 초불민심에 편승하여 정국주도권을 장악한 여당세력을 제압하고 보수세력부활을 위한 새로운 세력을 형성하려는 미국의 음흉한 속심이 깔려있다. 친미성향이 농후한 저들의 노복들을 내세워 남조선정계를 마음대로 조종해온 경향이 풍부한 미국이고 보면 이번 정계개편음모직업이 미국의 검은 손이 뻗어있지 않다고 누구도 장담할수가 없다.

하지만 기회주의자들의 운명이 언제나 그러하듯 안철수세력들이 발붙일 곳은 그 어디에도 없다. 남조선의 정의로운 민심을 등지고 미국과 권력을 쫓아 배신과 변절을 일삼는 세력이 보수의 파멸과 함께 력사의 시궁창에 처박히는것은 시간문제이다.

전영민



만평 제 3의 길

《안철수대통령! 으으~》

제3의 길

최근 남조선통일부가 집권자의 《대북정책》을 광고하는 소책자를 발간하였다. 책은 집권자의 《대선》공약과 《신베를린선언》, 《8.15정축사》 등의 내용을 굵어모아 그것을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실현을 위한 《3대목표》, 《4대전략》, 《5대원칙》으로 포장한것이다.

책의 내용을 보면 《북핵문제해결과 항구적인 평화정착》, 《지속가능한 남북관계발전》을 위해 《핵문제에 대한 단계적, 포괄적접근》, 《남북관계, 북핵문제병행진전》을 실현하며 《강한 안보》를 통해 《평화를 유지》하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정책》을 《추진》한다는것이다.

이것은 과국상태에

는 북남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내외의 비난과 조소를 받고있는 반민족, 반통일정책을 계속 지행해 보려는 어리석은 모지름에 불과하다.

북남관계와 핵문제는 아무런 인연도 없는것이다.

다. 공화국은 억만금과도 바꿀수 없는 민족의 생명이며 통일조선의 국보인 자위의 핵을 그 어떤 협상탁에도 울러놓지 않을것이다.

리명박, 박근혜적폐당 역시 그 누구의 《선핵포기》를 《남북관계의

더욱 악화시키겠다는것이 나 같다.

실지로 남조선의 한 통일부당국자는 현 《정권》이 《(한)반도정권》을 《상징》하는 별도의 《명칭》을 달지 않는데 대해 《(정부)가 바뀌어도 《한》반도정

고있다.

이번 소책자를 통해 다시한번 립증된 남조선집권자의 《(한)반도정권》이라는것은 한마디로 북남관계와 핵문제, 대화와 제재압박, 평화와 북침전쟁연습 등 도저히 량립될수 없는 문제들을 뒤섞어놓고 이어 보수 《정권》들의 내결정책까지 버무려놓은

보수 《정권》의 《대북정책》을 답습한다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비핵, 개방, 3 000》, 《(한)반도신뢰프로세스》라는것을 《대북정책》으로 내들고 북남관계를 과국어로 몰아갔다.

《남북관계, 북핵문제병행진전》이라는것은 결국 성립될수 없는 궤변이며 그것은 보수역적패당의 동족대결적인 《대북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겠다는것이고 북남관계를

은 바뀌지 않고 지속성을 갖게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뇌까렸다.

지금 남조선당국은 외세와 야합한 반공화국제재압살소동의 앞장에서 광분하고있으며 조선민족멸살을 노린 미국의 북침핵전쟁소동에 적극 편승하여 남조선의 하늘과 땅, 바다를 통채로 내어주는 대국배족행위도 거리낌없이 감행하

는 북남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내외의 비난과 조소를 받고있는 반민족, 반통일정책을 계속 지행해 보려는 어리석은 모지름에 불과하다.

북남관계와 핵문제는 아무런 인연도 없는것이다.

다. 공화국은 억만금과도 바꿀수 없는 민족의 생명이며 통일조선의 국보인 자위의 핵을 그 어떤 협상탁에도 울러놓지 않을것이다.

리명박, 박근혜적폐당 역시 그 누구의 《선핵포기》를 《남북관계의

은 바뀌지 않고 지속성을 갖게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뇌까렸다.

지금 남조선당국은 외세와 야합한 반공화국제재압살소동의 앞장에서 광분하고있으며 조선민족멸살을 노린 미국의 북침핵전쟁소동에 적극 편승하여 남조선의 하늘과 땅, 바다를 통채로 내어주는 대국배족행위도 거리낌없이 감행하

는 바뀌지 않고 지속성을 갖게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뇌까렸다.

지금 남조선당국은 외세와 야합한 반공화국제재압살소동의 앞장에서 광분하고있으며 조선민족멸살을 노린 미국의 북침핵전쟁소동에 적극 편승하여 남조선의 하늘과 땅, 바다를 통채로 내어주는 대국배족행위도 거리낌없이 감행하

는 바뀌지 않고 지속성을 갖게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뇌까렸다.

지금 남조선당국은 외세와 야합한 반공화국제재압살소동의 앞장에서 광분하고있으며 조선민족멸살을 노린 미국의 북침핵전쟁소동에 적극 편승하여 남조선의 하늘과 땅, 바다를 통채로 내어주는 대국배족행위도 거리낌없이 감행하

정세를 최악의 국면으로 몰아가는 불량난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이 조선반도에 핵전쟁의 불기름을 미친듯이 몰아오고있다.

《북의 도발》에 대비한다는 미명하에 각종 북침전쟁소동으로 정세를 격화시켜온 미국과 남조선의 호전세력은 오는 12월 4일부터 8일까지 련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를 사상 최대규모에서 강행하겠다고 부산을 피우고있다.

유사시 조선반도전쟁환경에 익숙하고 련합작전능력을 숙달하는데 중심을 두고 진행된다는 이번 련합공중훈련에는 최신형 스텔스 전투기들인 《F-22》, 《F-35A》, 《F-35B》를 포함한 140여대의 미공군 전투기, 90여대의 남조선공군 전투기 등 230여대의 각종 전투기들과 1만 2 000여명의 미군을 비롯한 수만명의 병력이 동원된다고 한다.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은 미국과 남조선이 련합공중작전능력향상의 미명하에 해마다 연말에 벌려오는 훈련으로서 지난

시기에는 주로 비공개로 진행되었으며 참가병력이 비행기대수도 보잘것 없었다.

그러나 올해에는 이 훈련을 련합공중훈련으로서 사상 최대규모로 벌려기로 하였다.

지금 내외호전광들은 이번 훈련이 《북의 핵시설 파괴를 기어이 터뜨려 북침 야망을 이루어보려는 미국과 남조선호전세력의 흉악한 기도의 산물이다. 군사적위협과 압력으로 공화국을 기어이 해치려는 것은 미국과 남조선당국의 변함없는 기도이다. 적대세력들이 공화국에 대한 경제봉쇄를 전례 없이 악랄하게 실시하고 군사적준동의 도수를 계속 높이고있는 리유도 여기에 있다.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의 무모한 광기는 공화국에 대한 공공연한 도전이며 가뜰이나 침예한 조선반도정세를 일촉즉발의 핵전쟁폭발국면으로 몰아가는 엄중한 군사적도발이다.

조선반도의 긴장을 완화할 대신 정세를 최악의 국면으로 몰아가기 위

해 분별없이 도발을 일삼았다. 그 연장선에서 이번에는 공중에서 공화국의 핵심시설을 타격하기 위한 불량난소동을 강행하려는 데 사태의 심각성이 있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의 군사적도발광기는 공화국이 병진로선의 불변침로를 따라 강력한 전쟁억제력을 백방으로 다져온 것이 천만번 옳았다는 것을 확증해주고있다.

내외호전광들이 스텔스 전투기따위를 가지고 그 누구를 놀래워보려고 제 아무리 객기를 부려도 그것은 범을 놀래워보려고 나팔대는 부나비떼의 짓거리에 지나지 않는다.

공화국은 이미 핵화약 고위에서 벌리는 무모한 불량난이 어떤 참담한 결과를 가져오겠는가에 대해 알아들을만큼 상기시켜주었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은 북침전쟁도발을 위해 저들이 지난 시기 벌려온 책동들이 어떤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였는가를 맹렬하게 돌이켜보아야 할것이다.

한 오그랑수에 불과하다. 미국과 체결한 각종 군사협정들에 얽매어있는 남조선의 현 당국이 남조선, 미국, 일본 《안보》관계를 3각군사동맹으로 발전시키지 않았다고 한 약속 역시 여론을 기만하기 위한 권모술수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 남조선의 언론, 전문가들도 《미국에 있어서 《싸드》 배치는 《한》 미일 군사동맹을 완성하기 위한 전략적인 문제이므로 현 당국은 절대로 《싸드》의 추가배치를 막을수 없다.》, 《중국이 《싸드》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하기 희망한다고 한것은 사실상 최후통첩이나 같다.》고 하면서 앞으로 《《싸드》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것》이라고 예고하고있다.

《싸드》 문제는 남조선 당국이 친미추종정책에서 벗어나고 《싸드》를 남조선에서 완전히 철수시킬 때에야 비로소 해결되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주 광 일

남조선당국이 《싸드》 문제로 인한 주변나라들과의 갈등을 덜어버리고 《관계 회복》을 시도해볼려고 모지름을 쓰고있다.

청와대와 외교부관계자들이 련일 언론에 나서서 《《싸드》 문제가 다시 거론되지 않을것이다.》, 《이미 《싸드》로 인한 쌍방갈등이 봉합되고 정상적인 상태를 조속히 회복하기로 합의하였다.》, 《쌍방관계는 완전해결에 이르게 될것》이라고 여론화하고있다.

그러나 이것은 주변나라들을 비롯한 세계여론을 얼려넘겨보려는 남조선당국의 알팍한 술책에 지나지 않는다.

남조선당국의 주장과는 달리 지금 주변나라들은 《싸드》문제를 의도적으로 부각시키면서 남조선당국에 계속 압을 가하고 있다.

그들은 《문재인 (정권)은 《싸드》 문제에 대해 력사와 중 《한》 관계, 쌍방국민앞에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 《말에는 신용이 있어야 하고

행동은 결과가 있어야 한다.》, 《장애물을 깨끗이 치우라.》고 하면서 남조선당국에 《《싸드》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독촉하고있다.

그러나 남조선당국은 주변나라와 한 《3불약속》에 대해 미국에는 《약속도 혐의도 아니며 다만 의향일뿐》이라고 다른 소리를 하고있다.

현시기 남조선당국이 끌

것도 미국과의 합의를 지킬수밖에 없는 친미굴종의 처지와 관련된다.

추가배치가 없다면 현재의 《싸드》가 제기능을 수행할수 없게 되어있으므로 미국이 가량이밀을 기라고 하면 기여야 하는 하수인들의 처지에서 상전의 요구를 거절할수 없다는것은 불보듯 뻔한것이다.

주변나라들은 남조선

한 오그랑수에 불과하다. 미국과 체결한 각종 군사협정들에 얽매어있는 남조선의 현 당국이 남조선, 미국, 일본 《안보》관계를 3각군사동맹으로 발전시키지 않았다고 한 약속 역시 여론을 기만하기 위한 권모술수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 남조선의 언론, 전문가들도 《미국에 있어서 《싸드》 배치는 《한》 미일 군사동맹을 완성하기 위한 전략적인 문제이므로 현 당국은 절대로 《싸드》의 추가배치를 막을수 없다.》, 《중국이 《싸드》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하기 희망한다고 한것은 사실상 최후통첩이나 같다.》고 하면서 앞으로 《《싸드》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것》이라고 예고하고있다.

《싸드》 문제는 남조선 당국이 친미추종정책에서 벗어나고 《싸드》를 남조선에서 완전히 철수시킬 때에야 비로소 해결되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최 광 혁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남조선의 현 당국자가 지난 11월 1일 《국회》시정연설에서 한 말이다. 그런데 말은 말이고 행동은 행동이다.

지금 남조선당국의 친미사대와 굴종행위는 차마 눈뜨고 보지 못할 지경이다.

다른것은 체재놓고라도 미국의 《북핵폐기》 주장에 무력대고 동조하고 《대북제재》와 군사적압박소동에 적극 편승하면서 북남관계를 계속 최악의 지경으로 끌고가고있는것이다.

남조선당국은 말끝마다

그 무슨 《굳건한 《한》미관계》와 《대북공조》를 력설하고 국제무대에서 제재와 압박을 구걸하다 무제 상전을 집안에 끌어들이고 반공화국압박모의판을 벌려놓는 추태를 부

리고있다. 그리고 외세와 야합하여 북침핵전쟁연습소동을 매일과 같이 벌려놓고있다. 12월초부터는 미국과의 련합공중훈련을 사상 최대규모에서 강행하겠다고 떠돌고있는 형편이다.

이렇듯 민족의 운명을 외세의 칼도마우에 올려놓고 무작정 미국을 쫓아

전쟁마차를 몰아가면서도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식민지와 분단처럼 우리 민족의 의사와 무관하게 우리 운명이 결정된 불행한 력사를 반복하지 않

겠다.》는 말장난만 늘어놓고있다.

과연 구단한 반공화국 대결정책으로 동족을 해치고 북남관계를 수습할수 없는 파국으로 몰아가는것이 민족의 의사이고 민족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는 행동인가 하는것이다.

말은 곧 행동으로 증명

된다. 언젠가 《미국에 노(NO)라고 말할수 있어야 한다.》고 했던 남조선 현 당국자가 발언도 한것 같지만 불과하다. 이것이 지금 여론의 일차한 평이다.

가관은 아무리 아무굴종하여도 미국이 현 남조선당국을 삼살개정도로나 여기고 저들의 리익 실현에 서먹고있을따름이라는것이다. 실지로 이번 트럼프의 남조선행각과정에도 나타났지만 남조선 미국 《자유무역협정》 개정과 《안보》문제 등을 구실로 미국은 남조선

간혹한 섬나라족속들의 군국주의적침야망

일본의 군국주의적침야망이 날이 갈수록 포화되어 내외의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있다.

지난 22일 일본 수상 아베는 참의원 본회의에서 《북조선의 미사일 공격》으로 부터 국민의 생명과 평화로운 삶을 수호하기 위해 《적기지에 대한 선제공격능력보유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떠들어댔다.

이과 관련하여 외신들은 아베의 발언이 《전투력 보유금지 및 전수 방위원칙》을 규정한 일본헌법에 전면배치되는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지금 일본은 공화국의 《미사일 위협》을 구실로 일본사회에 반공화국적대의 식과 《안보위기》를 고취하여 일본렬도전체를 군국주의의 소용돌이 속에 몰아넣어 《자위대》무력을 공격형으로 개편하고 군사대국화를 위한 헌법개정과 장기집권야망을 이루어보려고 미쳐 날뛰고있다.

현실적으로 일본은 《북조선의 미사일 공격》을 받는 경우를 가정한 주민대피 및 대응훈련이

라는것을 자주 벌려놓는 등 대내외적으로 《북조선위협설》을 적극 류포시키면서 그것을 구실로 선제공격능력확보에 대한 지지여론을 조성해보려고 집요하게 책동하고있다.

한편 일본반동들은 호위함을 비롯한 함선과 초계기, 전투기에서 지상을 공격하는 순항미사일 《토마호크》 개발에 나서는데 공격능력과 관련된 장비개발과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얼마전 일본방위성은 매년부터 개발이 시작되는 대함순항미사일에 지상공격능력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있으며 2022년까지 시제품완성을 목표로 77억부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하였다.

일본이 패망후 오늘까지 군사대국화실현을 위해 책동해왔지만 지금처럼 《선제공격》에 대해 공공연히 떠들며 해외침략의 길로 줄달음치던 때는 없었던것이다.

이것은 일본반동들의 군국주의행보가 위험계선을 넘어 본격적인 실행단계에 들어섰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일본내부에서 위기때마다 대조선적대행위에 매달려온 아베정부가 요즘은 미국 못지 않게 앞장에서 《북조선위협》에 《과잉반응》하고있다고 하면서 《북조선에 대한 압박》은 일본에 더 큰 위기를 불러올수 있다는 여론들이 나돌고있는것이 우연한것이 아니다.

군국주의마차를 채찍질하며 과멸의 낭떠러지를 향해 미친듯이 질주

하는 현 일본당국이야말로 섬나라의 전도와 일본국민들의 운명을 위태롭게 하는 진짜 위협의 장본인이다.

공화국을 걸고 력대집권자들이 실현하지 못한 헌법개정을 강행하여 일본을 《전쟁할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 조선에 대한 재침야망과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이루어보려는것이 현 일본당국의 흥심이다.

력사적으로 조선민족과 아시아인민들에게 헤아릴수 없는 해악만을 끼쳐온 일본반동들이 용납될수 없는 과거죄악에 대한 사죄와 배상은 고사하고 새로운 죄악을 덧씌우면서 재침야망을 서슴없이 드러내고있는것이 그 무엇으로써도 용납될수 없다.

일본반동들이 그 무슨 《위협》에 대해 고아대면서 군국주의야만에 박차를 가하는것은 섬나라 일본의 운명을 파멸로 몰아가는 위험천만한 도박인 동시에 국제사회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다.

지금 조선민족과 국제사회는 미국의 아시아계 패전략수혜의 돌진대로 나서서 제 리속을 채워보려고 간혹하게 놀아대는 왜나라족속들의 군사적망동을 예리하게 주시하고 있다.

일본반동들은 미국을 등에 업고 미친듯이 몰아대는 군국주의마차가 일본의 운명을 파멸의 구렁렁이에 처넣게 된다는것을 똑바로 알고 경계망동하지 말아야 한다.

본사기자 김 영 준

살구멍, 죽을 구멍도 못 가려본다

외세의 옷자락에 매달려 기생하는 남조선당국이 조선반도를 외세의 핵전쟁마당으로 전변시키려고 획책하고있다.

얼마전에도 《국방부》장관과 외교부 장관은 서울을 행각한 미국하원 군사위원회대표단을 만나 《《한》미간의 긴밀한 공조가 북에 강력한 억제메세지가 되고있다.》고 요사를 떨며 미전략자산을 순환배치확대와 지속적인 《동맹강화》를 구걸하였다.

실로 외세의 뒤받침이 없는 한시도 살아갈수 없는 정치머슴군, 식민지주주의 가련한 추태가 아닐수 없다.

남조선당국의 너절한

구걸행위는 외세의 대조선침략정책집행의 철저한 하수인으로서의 그들의 추악한 정체를 다시한번 적나라하게 폭로해주고있다.

지금 미국은 날로 무진막강한 위력을 떨치며 승승장구하는 공화국을 압박하기 위해 정치, 경제, 군사적수단을 총발동하여 덤벼들고있다.

미국은 조선반도핵문제를 산생시킨 저들의 최악은 당반우에 올려놓고 과렴치하게도 《북핵위협》나발을 요란하게 불어대면서 국제적인 반공화국제재압박의 도수를 높이는 한편 핵전략자산들을 뻗질나게 남조선에 들이밀어 핵전쟁연습을 광란적으로 벌려놓고있다.

미국이 침략과 전쟁의 대명사로 악명높은 핵전략자산들을 계속 조선반도에 들이밀고있는것은 트럼프가 췌친 공화국의 《완전과피》와 《절멸》이라는 미치광이폭언이 그 실행을 위한 극히 위험천만한 군사적도박에 이어지고있다는것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리성이 있다면 민족의 머리우에 핵구름을 몰아오는 외세의 미친 망동에 추종하는 행위를 견어치우고 분별있게 처신하여야 할것이다.

그러나 남조선당국은 불에 키질하는 격으로 미국과의 《동맹강화》와 핵전략자산의 순환배치확대를 구걸질하며 불을 지고 불속에 뛰어드

는것과 같은 자살망동짓을 하고있다.

남조선당국의 범죄적망동은 남조선을 미국의 침략적인 핵병참기치, 핵전쟁재물로 섬겨버리려는 쓸개빠진 사대매국행위이다.

인민들의 막대한 혈세를 섬겨바치며 핵재앙단지를 끌어들여 남조선을 외세의 핵전쟁마당으로 제공하는 쓸개빠진 놀음에 미쳐몰아가는 남조선당국이야말로 살구멍, 죽을 구멍도 가려볼줄 모르는 얼간망둥이들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남조선당국이 이발빠진 승냥이신세가 된 미국을 아직도 구세주처럼 여기면서 상전에게 빌붙고있는것은 날로 강화되는 공화국의 전략적지위에 대한 불안과 공포심의 발로만이 아니다.

남조선당국의 책동에는 특대매국노의 오명을 쓰더라도 상전의 힘을 빌어 어떻게 하나 북침핵전쟁의 버섯구름을 피워올리려는 흥세가 깔려있다.

바로 여기에 친미사대와 동족대결에 환장한 미국의 전쟁하수인들의 범죄적정체가 그대로 드러나고있는것이다.

시대착오적인 친미굴종정책을 추구한것으로 하여 쓰디쓴 맛을 여러번 남조선당국이 아직도 정신을 못차리고 사대매국행위에 열을 올리는것이야말로 스스로 멸망을 재촉하는 우둔한 망둥이라 해야 할것이다.

한 원 식

해결되지 않은 《싸드》 문제

어들어 배치한 《싸드》는 추가부속관련장비까지 보충받은 상태에서 《3불약속》에 관계없이 이미 조선반도를 벗어나 주변나라들을 겨냥하여 가동하기 시작하였다. 남조선당국자들이 《싸드》의 기술적제원에 대한 설명을 외면하고 《싸드》기지에 대한 주변나라의 현지 조사와 주변국방향감시가 불가능한 레이더차단벽설치를 받아들이지 않고있는

당국이 《싸드》를 남조선에 배치하는 일은 없을것이라고 하다가 기습적으로 끌어들이는 바람에 뒤통수를 얻어맞은 교훈을 지금도 잊지 않고 있다.

《싸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고 하는 남조선당국의 광고는 주변나라들의 보복공세를 피하고 미국주도의 미사일방위체계에 가담하려는 음흉한 속심을 가리우기 위

친미굴종행위로 얻을것은 수치와 파멸뿐

리고있다. 그리고 외세와 야합하여 북침핵전쟁연습소동을 매일과 같이 벌려놓고있다. 12월초부터는 미국과의 련합공중훈련을 사상 최대규모에서 강행하겠다고 떠돌고있는 형편이다.

이렇듯 민족의 운명을 외세의 칼도마우에 올려놓고 무작정 미국을 쫓아

가관은 아무리 아무굴종하여도 미국이 현 남조선당국을 삼살개정도로나 여기고 저들의 리익 실현에 서먹고있을따름이라는것이다. 실지로 이번 트럼프의 남조선행각과정에도 나타났지만 남조선 미국 《자유무역협정》 개정과 《안보》문제 등을 구실로 미국은 남조선

을 얻은 사실이 그것을 잘 말해준다. 나라난 사실들은 친미굴종행위로는 민족의 화해와 조선반도의 평화는 물론이고 아무것도 얻을것이 없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사대와 굴종으로 차례질것이란 수치와 파멸뿐이다.

본사기자 김 해 성

◎ 《백두산8경》 (8) ◎

조선의 자랑이며 세계의 명승인 백두산천지에서 산천어들이 떼지어 노는 풍경은 천하제일명산의 특이한 풍치의 하나로서 만사량의 경란을 자아내고있다. 이곳에서는 세계적으로 제일 큰 산천어도 발견되었다. 바람 한점 없는 날 천지에 저녁노을이 지면 천지산천어들이 먹이를 찾아 물위로 솟구친다.

시킨 다음 천지에 놓아 주어 번식시키는데 성공하였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주체77(1988)년 8월 백두산에 오르시어 지금까지 화산분화구에 생긴 못에는 물고기가 살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백두산천지에 산천어들이 떼를 지어

량원소들이 거의 다 들어 있다. 광물질총량이 약 350ppm인 천지물속에는 수소탄산이온, 칼슘, 마그네슘, 칼리움, 나트륨 등이 알맞게 들어 있다. 천지물은 위생학적으로도 깨끗하며 그 물맛이 대단히 좋다. 천지에는 산천어가 먹을 수 있는 부유식물

량이 7.7kg인 천지산천어가 채집되어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다. 천지산천어는 우리나라의 천연기념물로 제정되었으며 국제생물권보호구의 보호대상으로 철저히 보호관리되고 있다. 오늘도 낱알이 그 수가 늘어나고있는 천지산천어는 백두산을 찾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안겨 주고 있다.

떼지어 노는 천지산천어

원래 화산분화구에 생긴 못에서는 물고기가 살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백두산천지에서 산천어들이 떼지어 다니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희귀한 현상이다. 백두산천지는 그 둘레에 높은 외륜산들이 절벽을 이루고있기때문에 외부로부터 그 어떤 물줄기도 흘러드는것이 없으며 오랜 기간 몇 종류의 하등생물들만이 있었다. 수십년전 삼지연군사람들과 협동하여 백두산천지종합탐험대원들은 산천어를 환경순

산다는것은 세계적으로 희귀한 현상이라고 하시면서 매우 기뻐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체81(1992)년 12월 천지의 자연환경에 순응되고 형질적으로 다른 지방의 강과 호수의 산천어와 다른 백두산천지의 산천어를 친히 《천지산천어》라고 이름지어주시였다. 백두산천지물은 맑고 깨끗할뿐 아니라 바다새와 온천을 비롯한 지하수가 많이 포함되기에 광물질 등이 보통 물에 비해 많으며 사람들의 건강에 필요한 미

과 수중곤충, 천지상공을 날아다니다가 떨어진 곤충들의 양이 놀라울 정도로 많다. 따라서 먹이원천이 풍부하다. 천지산천어는 9~10월에 천지연안의 부석교래판을 약간 우묵하게 밀어제끼고 1마리가 600~700개 지어 1000개 이상까지의 알을 낳는다. 알을 밑에서 100일이 상 걸려야 알에서 새끼가 꺼난다. 주체81(1992)년 부터 현재까지 길이가 30~70cm인 천지산천어가 많이 채집되었는데 주체89(2000)년 10월 17일에는 길이가 85cm, 몸질

량이 7.7kg인 천지산천어가 채집되어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다. 천지산천어는 우리나라의 천연기념물로 제정되었으며 국제생물권보호구의 보호대상으로 철저히 보호관리되고 있다. 오늘도 낱알이 그 수가 늘어나고있는 천지산천어는 백두산을 찾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안겨 주고 있다. * * * * * 참으로 백두산은 천출명장들의 불멸의 자취가 력력히 어려있는 혁명의 성산이며 웅장함과 숭엄함, 신비로움과 절묘함으로 자랑높은 천하제일명산이다.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절세위인들의 거룩한 생애와 더불어 세세년년 빛을 뿌릴 《백두산8경》을 태양민족의 만년채보로 길이 전해가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원수님의 령도따라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수행에서 더 큰 비약과 전진을 이룩해나갈것이다. 백두산천지종합탐험대 연구사 박사 최근섭

-2017년 가을철상품전시회-

우수한 상품들로 인기를 모은 전시회

얼마전 평양에서 2017년 가을철상품전시회가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820여점의 질고 다양한 상품들이 출품된 이번 가을철상품전시회장은 수많은 참관자들로 련일 흥성거리였다. 인기있는 명제품, 명상품들을 많이 생산하여 온 나라에 널리 알려진 류원신발공장과 평양곡산공장, 원산구두공장에서 출품한 상품들이 사람들의 인기를 특별히 끌었다. 류원신발공장에서 다중화, 다양화, 경량화된 각종 운동신들을 출품하여 사람들의 관심을 모았는가 하면 품위가 질 좋은 고급구두들을 출품한 원산구두공장매대도 많은 사람들로 붐비었다. 누구나 즐겨 찾는 우수한 명제품, 명상품들은 식료품매대와 화장품매대에도 그 득히 쌓여있어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흐뭇하게 하였다. 전시된 어린이들의

발육과 건강에 좋은 영양식품들과 갖가지 음료들은 젓 먹이어린이가 달린 어머니들의 호기심을 끌었다. 한편 향료 및 화장품공학연구소에서 첨단기술을 리용하여 개발한 여러가지 기능성 화장품들은 처녀들속에서 수요가 매우 높았다. 이번 가을철상품전시회에서 특별히 인상적것은 각 도특산물매대였다. 강원도 안변지방의 유명한 감으로 만든 곳감이며 량강도 대홍단군의 감자, 자강도와 함경북도, 함경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평안남도, 평안북도의 깊은 산속에서 채취한 산나물들 비롯한 특색있는 지방특산물들은 도 가정주부들의 눈길을 끌었다. 이번 가을철상품전시회는

계절적특성에 맞게 가을철과 겨울철에 사람들의 생활에서 많이 요구되는 옷과 신발들, 농토산물들을 비롯한 수많은 상품들이 출품된것으로 하여 더욱 관심을 모았다. 또한 상품을 생산한 공장, 기업소들이 매대를 차려놓고 판매도 하도록 함으로써 자기 공장에서 생산하는 상품들에 대한 인민들의 수요를 더 잘 알수 있게 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2017년 가을철상품전시회는 자력자강의 기치밑에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최후승리를 안아오기 위한 인민들의 투쟁을 더욱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중요한 계기로 되었다. 본사기자 강류성



류원신발공장에서 생산한 운동신들

공화국의 민족유산보호지도국에서 등록한 국가비물질문화유산에는 가야금제작기술도 있다. 가야금은 나무로 된 장방형의 현악기로서 21개의 줄을 가지고있으며 이 줄들을 손가락으로 뜯어내어 소리를 내는 우리 민족의 고유한 지탄악기이다. 가야금은 6세기 초엽에 가야국(금관가야)의 악사로 활동하던 재능있는 음악가 우륜이 창안 제작하였으며 가야라는 나라에서 나왔다고 하여 가야금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가야금의 구조는 울림통, 줄, 이동패, 줄베개, 머리, 꼬리, 줄조임못, 다리, 울림구멍 등으로 되어있으며 줄조임개가 따로 있다.

국가비물질문화유산 가야금제작기술

가야금의 제작방법은 우륜이 처음 가야금을 만든 6세기 초엽으로부터 오랜 역사적과정에서 내려오면서 오늘까지 기본상 자기 제작방법의 특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정하게 개량되어왔다. 가야금은 첫 시기 12줄로부터 13줄, 19줄로 개량되어왔으며 오늘날에는 21줄로 늘어나 음역을 보다 넓히고 조를 쉽게 할수 있도록 제작방법이 발전하였다. 가야금의 제작은 크게 두가지로 나누는데 나무선력과 커기, 말림공정과 제작공정으로 볼수

있다. 가야금의 앞판은 소리를 울림을 형성하는 역할에 맞게 목재의 년륜이 비교적 성근 오동나무로 만들며 소리를 반사시켜주는 진동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뒤판은 밤나무, 가래나무, 대추나무 등으로 만든다. 대체로 30년정도 자란 나무가 좋은데 정목벌(년륜의 면이 목재의 년륜과 수직이거나 수직에 가깝게 썬 널판)로 썬 앞판과 뒤판, 줄조임판, 마구리, 머리판, 울림통의 헤두리장식판, 이동패 등 부품들을 따로따로 만들

어 조립하는 방법으로 제작한다. 이렇게 기본제작공정이 끝나면 나무결이 그대로 살아나게 하는 인화법으로 도색을 하며 마감으로 명주실을 꼬아서 만든 줄을 메운다. 우리 민족의 슬기와 재능이 깃들어있는 가야금은 구조가 간편하고 탄력이 있으면서도 그 울림이 부드럽고 우아하며 연주법이 다양하고 배우기도 쉬우므로 널리 보급되고있다. 오늘 가야금은 우리식의 배합관현악, 반주음악, 기악곡, 독주곡들의 연주에 쓰이면서 우리 민족음악의 고유한 흥취와 멋을 살리는데서 큰 역할을 하고있다. 본사기자

사화 리규보와 《해좌7현》 (6)

글 전철호, 그림 박봉혁

... 농사군의 피땀을 빨아 먹고서는 제 팔자 좋아서 부자가 되었다네 이 시는 《농사군에게 맑은 술과 흰쌀밥 먹기를 금지했다는 말을 듣고》의 한구절이었다. 리규보는 어느 시들처럼 이 시도 자기가 체험한 것을 그대로 글줄에 옮겼을뿐이었다. 어느날 개경거리에 있는 무신의 우두머리인 리의민의 집앞을 지나던 리규보는 그 집이 대궐이 왔다 울고갈만큼 하도 크고 요란하기에 적당히 구실을 대고 들어 가보았다. 솟을대문안에 들어서니 넓은 뜰안에 불당의

본전같이 험난하고 웅장한 집들이 여러채나 들어앉아있었는데 방마다에서는 희한한 기물이며 희귀한 보물들이 령롱한 빛을 뿌리였고 고간마다에서는 쌀이며 고기, 술이며 비단 등 갖가지 재물들이 차고넘치고있었다. 이 집에서는 개들도 흰쌀밥에 고기국만 먹다보니 이제는 입들이 높아져 그것도 잘 받아먹지 않는다는 말까지 듣고나니 어이가 없어 입이 열리지 않았다. 이런 큰 도적이 몇이만 더 있어도 나라는 숨이 막혀 쓰러질것이었다. 하다면 시골살이는 어떠했는가. 천하를 먹여살리는 농사군들이 웃이라고 걸친 것은 하나같이 덧길고 또

덧기운 누더기였고 먹는 것이란 오로지 풀뿌리를 넣고 끓인 뽕떡하고 쓰디 쓴 죽물뿐이었다. 날에날마다 리규보의 눈에는 험털고 굶주림에 겨우겨우 목숨을 이어가는 가난한 농사군들의 먼지밖에 없는 집들을 털어내기 위해 악을 쓰며 돌아치는 아전나부랭이들과 라졸들, 땅인자라는 부자들들의 행패질이 계속 비쳐들었다. 그런 관국인메도 조정이라는데는 농사군들이 맑은 술에 흰쌀밥을 먹고 사는줄로만 알고 그것을 먹지 말라는 금지령까지 내렸으니 이야말로 소가 웃다가 꾸레미러질노릇이 아니고 뭐란 말인가! 《농사군에게 맑은 술과 흰쌀밥 먹기를 금지했

다는 말을 듣고》가 적혀 있는 종이말이를 내보이며 《바로 이 시에 백운 거사의 의로운 기백이 실려있거든. 이렇게 진짜 시라고 할수 있지 않겠소.》라고 리인로가 입을 열자 모두가 그렇다고 입을 모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들의 가식없는 칭찬 그대로부터 리규보는 웃으며 리규보는 어쩔 수 없이 응수했다. 《저는 단지 불쌍한 백

말이요?》 독장사군은 흑시 선비가 소경이 아닌가 해서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선비는 흥하고 코웃음을 쳤다. 《날 속임 생각일랑 아예 마시우. 이래봐도 십년동안 바깥출입 한번 안하고 글을 많이 한 내가 가야 유모아》

유모아 독을 사러 간 골방선님

선비는 돈을 절렁거리며 독장사군에게 갔다. 독장사군은 선비를 데리고 독을 건사한 뒤 울안으로 갔다. 그런데 여름장마때여서 독들을 모두 없애놓은채로 건사해놓고있었다. 《자, 어서 마음에 드는 독을 고르시오.》 선비는 독들을 힐끔힐끔 살피며보고나서 못마땅한 어조로 말했다. 《여기에 무슨 독이 있다

니 이런 물건을 어디에 쓰겠소.》 선비의 말에 독장사는 하하 웃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나서 닝큼 독 하나를 들어 바로 세워놓았다. 《자, 이건 뭐요?》 바로 세워놓은 독을 바라보던 선비는 무릎을 탁 치며 좋아하였다. 《이게 바로 독이요.》 독장사는 다시 독을 뒤집어놓았다. 《자, 이건 뭐요?》 선비는 그만 말문이 막혀 버렸다. 《독이란 참 묘한 물건이군. 바로 세워놓으면 독이 되고 엎어놓으면 다른 물건이 되니 책에도 써여져있지 않는 그 조화를 어떻게 알겠소.》

이 기간 리규보가 써낸 글을 보면 《농부를 대신 하여 읍노라》, 《이불안에서 웃노라》, 《군수 몇놈이 퇴물을 받다가 죄를 입었다는 말을 듣고》와 같이 가난한 백성들이 당하는 불행과 고통을 그대로 보여주고 탐관오리들의 학정을 날카롭게 폭로한 작품들로서 그가 한생 지은 작품의 절반을 차지할만큼 수백편에 이르렀다. 리인로의 《들국화》, 《산중살이》라든가 림춘의 《리담지에게》, 《벗에게》 등 《해좌7현》들의 적지 않은 시들도 이 시기에 창작되고 다듬어진것들이었다. 이렇듯 《해좌7현》들의 영향을 받아 젊은 리규보는 모방과 형식에 치우쳐서 눈물겨운 백성살이를 외면하고 어지러운 세상을 《태평시절》이라 고 미화분식하며 정계에

한 현실을 대담하게 폭로 비판하는 글을 많이 써낼수 있었다. 리규보와 《해좌7현》들이 글을 써내느라고 피사골안에서는 먹을 가는 소리가 그칠날 없었고 흰련꽃이 뿌리내린 정각앞의 련못에는 검은 먹물이 흘러들어 물이 새까맣게 되어버렸다. 하여 피사골이라던 지명도 먹물이 가득한 련못이 있는 골안이라는 뜻에서 《묵지골》로 불리워지게 되었다. 장구한 세월의 복잡다단한 변천속에서 묵지골이 솟아있던 정각도 자취를 감추었고 련못도 메워져 그 형체를 바이 찾아볼수 없었지만 오늘도 묵지골이라던 지명만은 그대로 남아있으니 증세 조 신문학과 더불어 뚜렷한 이름을 남긴 시성 리규보와 《해좌7현》의 자취도 후세도록 지워지지 않고있다. (끝) (끝)